

부활 제 2 주일

기도서 283 면

제 1 독서 : 사 도 5, 12-16

제 2 독서 : 묵 시 1, 9-13, 17-19

복 음 : 요 한 20, 19-13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부끄럼 없는 신앙인이 됩시다

유종환 신부



친등 번개치고 다급해지면 “오 하느님 아버지, 날 구해 주소서” 하며 매달리게 됩니다. 부족한 인간이 지존하신 하느님께 위탁하는 기도가 있겠지요.

오늘 복음에서 주의 부활을 불신했던 토마 사도가 부활한 주님의 모습과 음성을 듣고, 너무나도 당황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며 주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토마 사도처럼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사시사철 변화듯이, 낮과 밤이 바뀌듯이 인간의 심성은 하루에도 수시로 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엔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어두운 밤을 맞기도 하고 밝은 대낮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인간이 성숙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를 잘 수용하여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인생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은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 성서와 양서 읽기, 봉사의 생활 등은 인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좋은 길잡이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신을 키워나가기 위해 이와 같은 건전한 일들을 열심히 해나갈 때에, 가족과 이웃에게 보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게 됩니다.

친등 번개치고, 어둠밤이 밀어 닥쳐도, 또한 토마 사도처럼 불신의 고통을 당할 때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을 믿음의 길로 나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과 내일의 삶을 공동으로 엮어 나가듯, 우리 신앙인들도 모두를 가족들처럼 신뢰하고, “모두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는 생활”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갑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은 평화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진·선·미(眞善美)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늘 이러한 아름다운 사상이 일어나고, 우리의 행동에서 이러한 값진 사상이 꽃 피울 때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게 됩니다.

어느 시인처럼 “죽는 날까지 한 걸 부끄럼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길 위에 행복이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웃도 내 곁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형제여,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수류 본당 주임신부)



비업무용

비업무용(非業務用) 토지가 발생을 빚고 있다.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이 조사를 받다가 죽었다. 일이 심각하게 전개되다 보니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있는 기업들은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왜 기업들은 당국에서 하지 말라는 일에 그토록 기를 쓰고 매달리는가? 어쩌면 주범은 투자의 가치를 최대로 보장하는 부동산인지도 모른다. 말 없는 부동산이 소리를 지르면 평장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한 가지 재질을 갖고 있다. 살아있는 것이라면 대개는 그러하기에, 굼벵이도 뿜구는 재주가 있다고 말한다. 비록 특출한 재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직업이라는 것은 대개는 재질과 연결지어 정해진다. 조금 비약해 보면 업무용(?) 재질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

지난 70년대에 종교계에서 정치문제에 많은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때에 유행어처럼 생긴 한 마디가 소위 “물지각한 일부 종교인”이라는 말이였다. 다시 말해서 정치인 정치 전문가(?)들이 할테니까 아홉소리 말라는 말이였다. 요사이 말로 비업무용 토지에 손대지 말고 기도나 잘하라는 말이다.

자기 전공을 바꾸어 일해서 성공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몇 십년 교직에서 종사하다가 퇴직한 교사가 퇴직금으로 장사해서 잘되는 일은 많지 않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학생은 공부나 하고, 군인은 국방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 일에 손을 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사람은 정치적 동물인지라,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정치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만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서는 안된다. 비업무용 토지에 손을 대서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니까.

숲 정 이 산책



전주교구에서 지정한
성년 순례 본교인?

□ 부활절을 맞으며

빛 속으로 살아 오신 주님

김 속(말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루가 22, 42).

골고다에서 숨을 거두신 그 날의 슬픔이 봄빛의 호사로움을 앗아가더니.

알렐루야에 뛰는 가슴을 안고 오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온 누리는 새 생명으로 소생하고 있습니다.

“나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당신은 이렇듯 빛 속으로 살아 오셨습니다.

당신이 오심으로 온 세상 모든 것은 새롭게 빛나고 우리 또한 다시 살은 기쁨으로 설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부끄러운 세월 있어 당신의 사랑을 잃어버린 시간들을 울게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익혀온 길은 어둠의 끝나지 않은 일식 밑에서 방황하면서 어찌 당신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속에 모든 고뇌와 희망을 담아 비틀거리 없이 살 수 있었던들.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며 가을에 열매 거두는 당신의 섭리를 볼 수 있었던들.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기에 따라서 누구도, 사람을 벌주거나 판단할 수 없으니 몇 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당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던들.

어린 아이가 되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살아, 그 보람으로 기쁨을 삼았던들.

당신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부패된 공기 속에서 잠금되어 살아 온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이 약하다 나무라지 아니 하시기에 가없는 죄인은 기진맥진 더듬거리며 당신을 찾아 갑니다.

주여! 이 가슴을 씻어 주소서!

전능하신 두 팔로 안아 주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뵈울 수 있었듯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살아계신 당신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햇빛을 받으며 숨 쉬고 있는 대지의 고요로움이 당신께서 강복하여 주심임을 이제 압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심이 당신의 자비의 기적이라는 것도 이제 압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십시오!

이 크나큰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과 부활 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파티마 본당)

영세자의 노래

상관본당 이 윤 섭(아고보)

나를 데려 가 주소서,

영원한 당신 곁으로.

감졌던 내 눈이

이제야 당신을 보았기에,

부끄러운 몸에 흰옷 드리워 입고 당신께 나가나이다.

나를 받아 주소서,

따사로운 당신 손길로.

어리석은 내 생각이

이제야 당신의 필요함을 알았기에,

깨끗한 우유침에 내 죄를 씻어 당신께 드립니다.

나를 위로해 주소서,

깊은 당신의 사랑으로.

방황하던 내 마음이

이제야 당신을 찾았기에,

떨리는 두 손에 촛불 밝혀 들고

당신 앞에 머무르나이다.

신랑이 신부를 맞듯 맞아 주시고,

부족한 내 영혼에 입 맞추어

당신 앞에 이끌어, 영원히 사랑하여 주소서,

내 모든 것 당신께 드리고,

슬퍼도 참고 괴로와도 참으며

내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리이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부활 아침

무거운 무덤돌의 침묵을 깨고

당신이 여시는 날

기나긴 어두움의 끝은

화안히 빛나는 영광의 아침

모진 겨울 바람으로 존재한

베드로의 배반과 같은 어제

聖人の 믿음으로

장례틀에 엮디어 구하는 마음

겹겹이 껴입은

오만과 체면의 옷을 벗고

숨김없는 겸손한 裸木으로 곱게 서

사랑으로 입히시는 봄옷을 입고

영광스러이 비추이는 햇살과 같이

천사들의 청아한 나팔소리 따라

정결한 몸짓으로

부활의 기쁨을 노래 부르오리.

(서학동 본당 최 데레사)

금·은·보석·시계는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전주 남문영

(대지목욕탕 입구)

전화 6-4989(사구판구)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 6 6 6 ~ 8

대한항공 국내의 대리점

결혼대절, 제주도,

신혼여행 안내

- 혼수(회갑) 옷감 | 도
- 특수 파티복 | 매
- 고급 침구류 * 상
- 각종 솜 일체 | 상
- 커튼지 | 상

서 울 주 단

☎ ③0453 ③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독일 치질약 재입하

하 이 덴

여드름 치료제 입하

전주 시민약국

☎ ④ 0009 · ③ 3338

약사 김 병 의(마렐로)



□ 수류 사제관 축성미사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수류 본당은 새롭게 사제관을 개축하고 축성미사를 갖게 되었다. 그동안 물질 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개월 동안이나 자신의 사업을 뒤로 미루고 개축공사를 위해 헌신 봉사하여 주신 중앙성당 안 창훈(안셀모)씨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수류본당에서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모든 분들을 초청하고 있다.

모시는 글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성에 힘 입어 교구장님을 모시고 사제관 축성미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하시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소 : 수류 천주교회 일 시 : 83년 4월 11일(월) 오전 10시30분

주 레 : 박 미카엘 주교님

수류 천주교회 주임신부 유 중환, 사도회장 고 광열

□ 제5지구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우리 선조 순교 복자들에 대한 심심과 공경은 너무도 당연하다. 2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정신운동으로 계속되고 있는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에 우리 모두 참여하고 교구 내 성지개발을 위한 특별 봉헌에도 우리의 정성을 모아야겠다.

지난 사순절동안 4지구(전주지역)에서 성황리에 마친 기도회는 9일부터 16일까지 5지구에서 계속된다. 유해 순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상관-9~10일, 남원-13~14일, 순창-15일, 임실-16일

□ 교구 평협, 취약 본당이나 공소에 교육 지원

교구 평협(회장 梁尙烈)은 83년도 사업의 하나로 취약 본당이나 공소의 교육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보다도 우선 교육에 맛을 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교구 평협의 지원을 희망하는 본당이나 공소는 4월 20일까지 교구 평협에 신청하면 가능한대로 최대의 협조를 할 예정이다. (본당에 나간 공문 참조)

□ 베벨 성서 강좌

작년 5월에 문을 열었던 베벨 성서(생활편 제 1기) 강좌가 긴 학습 끝에 4월 11일자 로 63명이 수료식을 갖게 된다.

생활편 제 2기 강좌를 원하는 이들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강자를 모집한다.

강사: 범 석규 실부 장소: 전주 가톨릭 센터

개강: 83년 4월 20일(수) 오후 7시30분(※월요일 강좌를 수요일로 옮김)

접수: 4월 15일까지 교육국에서 교재대 및 회비: 27,000원(월회비 없음)

□ 부활절 정기 연주회

가톨릭 전주교구 대학생 연합회 마니피캣 합창단에서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연주회를 갖게 되었다. 성가를 통한 하느님 찬미와 가톨릭 음악의 전파는 선교 200주년을 한 해 앞둔 현 시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어려움을 겪으며 준비한 대학생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

일시: 83년 4월 10일 오후 4시, 7시30분 장소: 전북 예술회관

주최: 가톨릭 전주교구 대학생 연합회 후원: 가톨릭 전주교구 평신도 협의회

□ 마춤·대여

웨딩드레스·약혼복·연주복·부케·신부화장·비디오 촬영

신 부 의 집

동서관동로 서울신탁은행 앞

전화 ⑥ 6951

정 인 기(논저노)

K. S. 표시 허가공장

신 흥 콘크리트

☎ ⑥6016 ⑥6415

대표 이교섭(요셉)

시멘트, 벽돌, 블록, 보도블록, 철근 콘크리트관, 철근 콘크리트판

최윤경 미용실

(유리안나)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학생 수시 모집

해의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③ 2496 ② 8653

요심이 (505) 김병오

국비유학생시험, 재점착으로 낙방된 4명 추가합격시험



재점결과 감사하여 또 4명 추가합격시험



문교부입니까?



시험지를 재검토해보시오 또 억울한 불합격자가 더있을지도모르나!



신부님 등산

운장산 당일치기

도시락 각자가

센터에서 버스로 출발

동반자도 가람

센터에 7시 도착

안내자 김 병 열

재즈

크라식



상당수준의 교착본(케르니, 쇼나타) 소화자에게 약보없을 시도 반주해 낼 수 있는 세미 크라식 반주법의 회소식

피아노 반주법

전화 ④ 3770

이일규(알로이시오)

※ 구 역전과 전교중간 사거리 전북은행 노송동지점 앞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축! 수류 사제관 축성: 11일(월) 오전 10시30분(축성미사-교구장님 주례)
2. 제 5지구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9일-상관, 13일-남원, 15일-순창, 16일-임실
3. 휘콜라레 월 전체 여자 모임: 10일 오후 2시, 장소-중앙성당
4. 중·고학생 회장단 회의: 10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 가톨릭 센터, 회비-2천원
5. 1일 성서 피정: 11일(월) 오전 10시~오후 4시30분, 센터, 참가비-2천원 ※ 참가자는 요한복음 읽을 것
6. 대학생 연합회 백스 로마나 데이: 16~17일, 가톨릭 센터, 회비-2,500원
7. M.E. 사도직 프로그램 "참 부모가 되는 길": 24일, 가톨릭 센터, 접수-20일까지 교육국
8. 평협 장례예절 교육: 24일, 가톨릭 센터

(중앙)

전화 01711~3

주임 신부 문정훈
수석보좌 안기철
보좌신부 한철문
사도회장 김인협

1. 복자반 예비자모집: 예비자들을 안내 바람(4월1시작)
 2. 토요 특전미사: 7시(4월부터)
 3. 사제양성 저금통: 알차게 살펴옵시다
 4. 고등학생 신자교리반: 10일 9시 미사후, 강당
 5. 축! 환영합니다: 이번주 전입자 최효남·김정환·서안당 가족·김진영·정근배 가족·이은선
 6. 성전 신축헌금 신임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계순·김복남(각 10만원), 김정남(2만원), 오겸례·홍성남(각 1만원), 정순희(1천원), 안이분·봉영숙(각 5만원), 이석순(30만원), 이경순(5만원, 전동교우), 이정남(20만원), 윤시몬(5천원), 신우섭(5만원), 신순옥(1만원), 신축헌금 누계-142,537,600원
- 지난주 봉헌금: 1,689,631원 교무금: 895,200원
감사헌금: 김기중·이영아·김정주·양옥자(각 5천원), 김정훈(1만원)

(노송동)

신부 00969 수.사 07032

주임 신부 김용태
보좌신부 나홍성
사도회장 이춘재

1. 본당 아치에스 행사: 오늘 오후 2시 꾸리아 회합후
 2. 사제양성 후원저금통: 오늘까지 가져오세요
 3. 예비자교리: 청년반 매주(토) 오후 7시45분으로 변경
 4. 성전 청소담당: 11일 오전 10시 원외교우신 모포팀
 5. 아파트 소식: ①교리반 안내 남자 지성인교리: 매주(토) 오후 7시30분 장소-슈퍼마켓내에 세탁소(강베드로씨 맥) 부인반: 매주(화) 오전 10시, 장소-인후동 성당내 ②성모회·임원회 월례회: 13일 오후 2시 ③성돌취급: 김로사리아씨, 인후아파트 104동 305호
- 지난주 봉헌금: 775,146원 아파트: 70,620원 교무금: 401,500원 아파트: 58,000원

(덕진)

전화 02182번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박찬길
사도회장 양상열

1. 본당 부녀회 임원 선임: 축하합니다
성심부녀회(40~50대 어머니): 회장-유정순, 부회장-이정숙, 총무-박귀순, 회계-임길자
까리파스 자모회(30대 어머니): 회장-권명, 부회장-이영애, 총무-박애자, 회계-이순례
※ 공식미사 후 30대 어머니들 잠깐 남아주세요
 2. 본당 청년연합회 창립: 회장-이계명, 부회장-박석규·김연실, 총무-오인경
 3. L.M 꾸리아 회의: 오늘 오후 2시(학생회관)
 4. 미사시간 및 교리시간(안내)
새벽미사-6시(월·수·목), 저녁미사-8시(화~토)
주일미사-6시(노인), 9시(젊은이·학생), 10시30분(공식미사), 오후 3시(아동), 8시(일반), 동산촌 미사(8시), 교리시간-수·목 밤 8시
 5. 반석회 월례회의: 17일 오전 11시30분, 치명자 산
 6. 성사 못보신 분: 평일미사 20분전
- 지난주 봉헌금: 825,465원 교무금: 305,000원
예두살렘 성전복구비: 100,000원

(목자)

전화 0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회장 조성호

1.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2.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자모회: 11일 어머니 미사후
4. 예비자 교리: 매주일 공식미사 후
5. 주일학교: 매주일 오후 2시, 어린이미사 3시

6. 봉헌금 미수가 없도록 안받하세요
 7. 중·고생: 주일 오전 9시 학생미사와 금요일 저녁 7시30분 쟈미사에 빠짐없이 참석 바람
 8. 애령회: 13일 오전 10시
 9. 금주전례: 해설-김성원, 독서-①조영호 ②최정순
차주전례: 해설-김재석, 독서-①강기연 ②김인식
- 지난주 봉헌금: 663,670원 인성회 헌금: 156,260원
성지개발 헌금: 320,010원

(서학동)

전화 0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회장 한영수

1. 반장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성심부녀회: 13일 오후 2시
 3. 할머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예비신자 교리시간: 공식미사 후(회의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5. 차주전례: 독서-①김한기 ②박형식
신자들의 기도-장재석·김영이·김봉호
- 지난주 봉헌금: 519,546원 교무금: 160,000원

(숲정이)

전화 07366 수.유 09567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회장 김수섭

1. 24일 주일미사: 오전 10시-공식미사, 11시30분-혼배미사, (새벽·저녁미사 없음)
 2. 전신자 1일피정: 24일 오후 2시~6시(강사-조이·니콜스(호주), 로버트·니콜스(호주)), 저녁 7시30분~10시(강사-이태규·이인복), 저녁 10시-감사미사 참가비(2천원)
 3. 사도회·꾸리아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부녀회·성모회·후원회 합동모임: 오전 11시(성당)
 5. 금주전례: 해설-정주복, 독서-황현도·김남근
기도-김경주·허옥순
- ◎ 신학생 후원금: 181,575원 꽃대: 김벨라벳다(5만원)
□ 지난주 봉헌금: 348,935원 교무금: 481,360원

(전동)

신부 06208 사부 03222 수녀 08347

주임 신부 김병업
사도회장 박찬길
이종두

1. 사도회·자모회·장우회: 공식미사 후
 2. 성마리아 꾸리아: 오후 2시
 3. 성화회: 꼬미시움-다음주
 4. 신학생 후원회에 가입하세요: 1구좌-1천원
 5. 미사시간 변경안내: 아침미사-5시30분, 학생미사-8시30분, 공식미사-10시, 어린이미사-오후 3시, 저녁미사-7시30분
 6. 예비자 모집안내: 9월(복자축일)
4월 모집: 지성인-수·목요일 오후 8시, 일반인(주부)-<금> 오전 10시30분, 합반-일요일 공식미사후
 7.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박종우,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서정옥, 독서-①이영희 ②백중훈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김희진 ②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1,036,300원 교무금: 1,381,000원

(파티마)

신부 00915 수녀 04804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황희상

1. 미사시간 안내: 월-아침 6시, 화·목-저녁 7시30분, 수-아침 6시, 금-오전 10시, 토-오전 5시
 2. 부활 봄 판공성사 못보신 분: 미사 30분전
 3. 각 쁠레시디움은 영세하신 분들 권유해서 레지오에 가입시켜 선교의 문을 열어줍시다
 4. 신수녀님 휴가: 8월~21일까지
 5. 부활 꽃대: 노래레사(1만원) 감사합니다
 6. 일선 군인들을 위한 성서 수집 계속 접수
- 지난주 봉헌금: 510,580원 교무금: 389,000원
유해 순회기도회 봉헌금: 205,180원